

주제와 관련된 토의자의 의견

홍 혜 결

중앙일보 정보과학부

1. “영양”은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보건학에서 새롭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표

과거에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질환별로 이루어지고 그 질환에 따라 정책의 우선 순위가 정해졌으나, 최근에는 risk factor라고 하는 운동부족, 식사나 영양, 수면, 담배 등의 요인들이 전체 사망 원인중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1위는 흡연, 2위가 영양으로 조사된 것을 통해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 90년대 초반 미국립보건원에서 50년 동안 사망률의 변화 조사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심장병과 암에 대해 50년간 동일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암은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과 관련된 첨단의학에 치중하여 연구되었고, 심장병은 국민교육, 홍보, 생활패턴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첨단의학 보다는 영양교육 같은 실생활의 변화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영양은 중요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은 도외시되고 있다

1)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과 관련된 지식 수준은 매우 낮고, 열악한 상태이다.

주된 원인으로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4월중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서 다루었던 기사 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질병 관련 기사 1800건에 비해 식사나 영양 관련 기사는 40건으로 1~2%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처럼 ‘영양’이 외면 당하는 이유는 정보로서의 가치 면에서 식상한 내용이 많아 신선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기자들의 의사 편향적인 취재와 영양학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들과의 공식적인 route 부족 때문이다.

3. 그러나 대책은 있다

1) 대중매체의 강화나 대중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 대중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영양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많은 기여가 요구되고 특히 interne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지식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젊은 여성이나 어머니를 target으로 한 행동의 변화가 요구된다.